

영어교육의 전문성

金 德 起
(高麗大學校)

1. 문제의 제기

전문성(professionalism)이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한 분야의 전문가는 비전문가에 비하여 오랜 교육과 훈련을 받아 그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한다. 전문가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그 전문성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사회 통념상 인정을 받아 “○○전문가”로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분야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 또 어떤 경우에는 법으로 그 자격 기준을 명시하므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문가로 부를 수가 있다.

영어 교육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원이 되기 위하여는 사범대학 영어 교육과나 일반 문과대학의 영문과 이수자가운데 몇가지 지정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하므로 일단 법적으로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셈이다. 대학의 교양 영어강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학원 영어 영문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언어학 석사학위 이상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불문불치럼 되어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회화나 작문을 가르치려면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여부 말 묻는것이 상례이다.

이와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은 일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흔히 영어 가르치는일, 특히 교양영어지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다시 말해서, 법령이나 대

학 자체의 불문률에 의하여 영어 교육 종사자의 일자리가 보호받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를 받아야 할 전문성 자체가 종종 의문시되는 것이다.

극히 상식적으로 말하면 영어 교육 전문인은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영어 교육 전문인은 자기가 가르치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영어의 피 교육자는 영어를 배워서 자기 전공 분야에 도구로 이용할 사람들이므로, 영어 교육의 목적은 기능의 전수이다. 영어 교육인은 우선 이 영어 사용 기능이 있어야 한다. 즉 영어를 지식이 아닌 의사 소통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영어 교육 전문인의 첫 번째 자격 기준을 갖춘 것이다.

둘째, 영어 교육 전문인은 자기가 가진 영어 사용 기능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교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수 기술은 과학적 분석능력이라기 보다는 전문적 기예(art) 이어야 한다.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발견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실험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적 영어 교육인은 자기가 아는 영어의 질을 높이고, 자기가 사용하는 교수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부단한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영어와 영어 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가령 교수, 기술상 학생의 오류 교정(error correction)을 반드시 하는 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학습상 효과가 있다는 이론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번역을 중시하거나 교실 수업의 95% 이상을 영어보다는 국어의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교사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자체의 불문률이나 사범대학의 교직 과정 이수 조건을 영어 교육 전문인의 자질 요건으로 받아들이는 논리 이외에, 영어 교육 학회의 의견으로 전문성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부 영어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몇 년 전 부터 거론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영어 교육과의 교과 과정 중 중요 부분인 영미 문학, 언어학, 영어 교육론을 전공하는 교수들의 의견을 공청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하여 이해의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 입안되어 1986년 여름 워크숍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2. 워크숍의 진행

워크숍의 진행은

- ① 문제의 제기 (고려대 김덕기)
- ② 언어학과 영어 교육 (서강대 이홍배)
- ③ 영미 문학과 영어 교육 (덕성여대 최은경)
- ④ 미국에서의 영어 교육 전문성 (연세대 Dwinght Strawn)
- ⑤ 영국에서의 영어 교육 전문성 (서울대 James Forrest)

의 순서로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은 토론을 거치기로 하였다. 연사중 영어 사용 능력에 지장은 없으나 한국어로 의사 발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워크숍에 참가하시는 회원들도 같은 사정 이어서 연사 5명에게는 영어로 의견을 발표하도록 사전에 부탁을 한 바 있으나, 이홍배 교수는 청중의 95% 이상이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므로 한국어로 발표하기로 천명하고 그렇게 실행하였다. 따라서 4명은 영어로 발표하고 1명은 한국어로 발표하게 되어 연사들 서로의 토론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연사들의 발표후 질의 응답은 2명의 영·미국인 연사와 청중 가운데 영어 사용권 출신들은 참여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어로 진행이 되었다.

이홍배 교수는 언어학과 영어 교육의 관계를 언어학자로서 규정짓기 보다는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언어학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제시된 교수 방법을 여러가지 경험하였으나 그 때마다 오히려 새로운 실패였다고 말하고 영어 교수법의 변천이 너무 심하다고 평했다.

영미 문학을 전공하는 최은경 교수는 언어의 학습에서 목표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적절한 수준의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영어 교육은 전문가 (professionals)들이 주도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세 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법을 강의하는 Strawn 교수는 영어 교육 전문인들의 “우리말”은 우선 영어이어야한다고 시작한 후, 영어 교육 전문인을 위한 전문성 기준은 전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예로 들었다.

가. 학생에 대한 존경

- 나. 시범(role-model)이 될만한 정도의 영어 사용 능력.
- 다. 외국어를 배워 본 경험과 그 외국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
- 라. 언어의 본질 이해
- 마. 언어 학습의 과정(process)을 이해
- 바. 교수의 원칙을 알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사. 시험과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에 대한 이해와 응용 능력
- 아. 多元의 사회 생활에 대한 이해

등인데, 상세한 내용은 Blatchford(1977)가 편찬한 TESOL의 교사 자격 기준(*Guidelines For the Certification and Preparation of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n the United States*)에 들어있다. 여기 제시된 내용 가운데 “외국어를 학습해 본 경험”은 미국인이 영어 교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겠고, “시범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사용 능력”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표준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이 교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성취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간주된다.

영국 문화원의 교환 교수 계획에 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Forrest 씨는 Strawn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주장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Forrest 씨는 영어 교육 전문인의 필수 자질이 영어 사용 능력, 영어의 구조, 영어 학습과 영어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영어를 교수할 수 있는 교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언어학의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Forrest 씨에 의하면 “외국어로써의 영어 교사 자격 기준”을 쓴 책자가 영국에서 발간된 것이 있다고 했으나, 아직 구할 수가 없었다.

연사들의 발표가 끝난후 질의 응답과 토의가 있었는데, 사회자는 사용 언어의 제한이 이미 무너졌으므로 한국어와 영어중 각자 편리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자, 대부분 한국인 참석자들의 의견만 발표되었다.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영어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최저 자격 요건으로 영문학, 영어학, 언어학, 그리고 영어 교육학의 석사학위 취득인데, 이와같은 학위 취득으로 대학 영어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느냐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여서, 현실을 인정하

고 계속 연구 검토하기로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장차 영어 교육 학회의 이름으로,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 전문성을 규정하여 자체 기준으로 삼고 문교부등에도 건의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도 본 학회의 연구 사업으로 하고 계속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3. 결 론

본 워크숍의 주제는 1985년부터 당시 학회 회장 공영일 교수의 주도로 모이기 시작한 몇명의 발기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입안되었다. 영어 교육은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과서를 읽고 해석 정도만 해주면 되는”비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임을 증명하려는 것이 본 워크숍의 취지였다. 결과적으로 영어 교육의 전문성이 학회의 회원간에 명시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현시점에서 영어 교육의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심어진 것으로 본다. 또한 앞으로 영어 교육 전문성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학회와 개인 연구를 통하여 발표되고, 교육 정책에서도 참고되어야한다.

본 주제의 입안과 발표 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분, 특히 당시 학회장 공영일 교수, 자료를 제공해 주신 Strawn 교수와 영국 문화원 Michael Jackson 씨에게 감사드린다.

<Abstract>

Professionalism in Language Teaching

Duk-Ki Kim
(Korea University)

Professionalism in language teaching can be roughly defined as the exclusive ability to teach language in such away that no lay person is able to perform.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Korea, however, has recently been accused of lacking professional qualities.

Four panelists were asked to define professionalism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s viewed from their own professional fields. Lee, Hongbae, a linguist of Sogang University, said that the goal of linguistics is to describe language in a scientific way, rather than proposing language teaching theories out of linguistic findings. Choi, Eunkyung, a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of Duksong Womens University, recommended teaching English literature of appropriate level since language learning involves culture learning. She conceded, however, that language teaching must be done by professionals.

Dwight Strawn of Yonsei University and James Forrest of Seoul University, who were asked to define professionalism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greed that a professional language teacher must in the first place know the language proficiently, be able to teach the language efficiently, and possess knowledge relevant to the target language structures,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and language teaching procedures.

None of the four speakers insisted that knowledge of theoretical linguistics and academic study of English literature, which now occupy the majority of English teacher preparation curriculum contents, are essential. A member of the workshop audience proposed that CETA work out a list of professional qualities to be adopted by colleges and the government education authorities, to which there was a general agreement among the participants.